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rows for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3일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rows for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4일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rows for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얼음 위를 벗어나 세상을 향해

SBS스페셜 '김연아, 2막을 열다' 4일 밤 방영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자신의 미래와 관련해 “아직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지금껏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0 밴쿠버 올림픽이 끝난 후 다른 챔피언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김연아는 또 다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야 했다. 동계 올림픽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독한 트레이닝에 투병도 부러보고 짜증도 났다.
김연아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하지? 하는 생각에 너무 혼란스러웠고 림프에 들어가서도 가만히 서 있었다”며 “말도 안하고 울지도 않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던 김연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평양의



동계올림픽 유치기 바로 그것.
유치위원회 홍보대사로 그는 총회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훌륭하게 마쳤고 평창 유치의 일등 공신이 됐다. 김연아의 꿈은 이제 얼음 위를 벗어나 세상을 향해 있다.
그중 하나는 피겨 꿈나무들을 위해 피겨 전용 링크를 건립하는 것.
제작진은 “그의 다음 행보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지 김연아 본인도 확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김연아 스포츠가 행복하고 즐거워할 선택을 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연필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일(음 8월 5일 庚申)

Table with 2 columns: Animal sign (子, 丑, 寅, etc.) and corresponding fortune text for the day.